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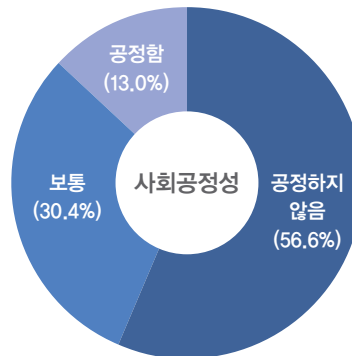


〈2022년 불평등 · 공정성 국민인식조사〉 설문 결과

불평등해소정책 DB구축사업단은 2022년 4월 1일~15일에 걸쳐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불평등 · 공정성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지역, 성별, 연령별로 비례할당 추출한 2,018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번 설문 조사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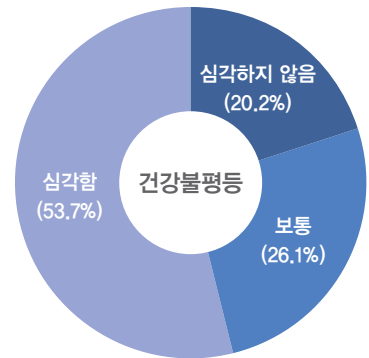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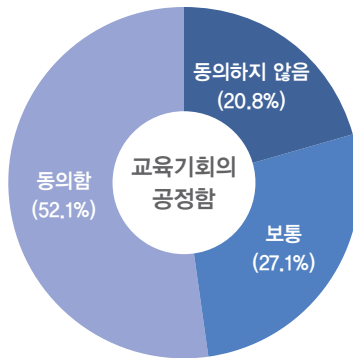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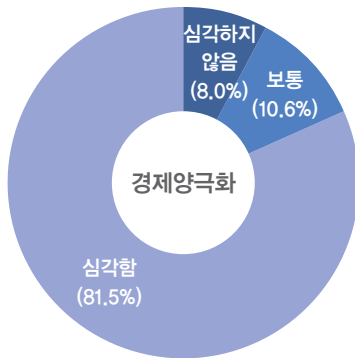
설문문항은 불평등 ·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식을 살펴보고, 경제 · 소득 불평등, 교육 불평등, 건강 불평등, 근로 · 노동 불평등, 다문화 · 이주민 불평등, 정보 · 기술 불평등 6개 부문별로 불평등 ·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문항에 대한 불평등 · 공정성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사회 공정성]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과반인 56.6%로 나타났다. 즉, 국민 2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은 30.4%, 공정하다는 응답은 13.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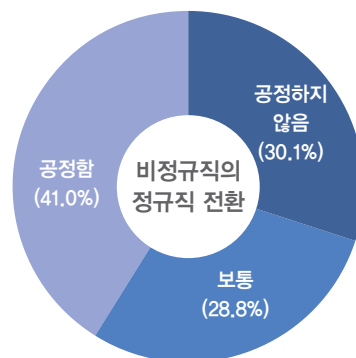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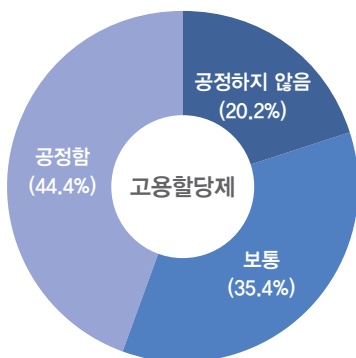
[부문별 불평등 · 공정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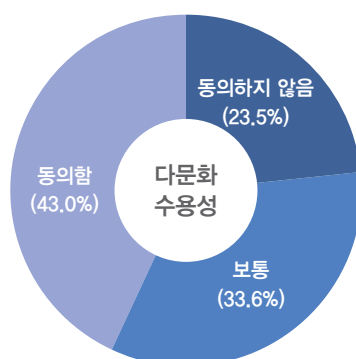
다음으로 부문별로 불평등 ·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경제 ·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심각하다는 응답이 8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0.6%,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8.0%에 그쳤다.

교육 불평등은 교육기회의 공정함과 관련하여 ‘교육기회는 나의 노력에 따라 공정하게 주어진다’라는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분석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52.1%, 보통이라는 응답이 27.1%,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8%로 나타났다. 즉, 교육 불평등 측면에서 교육의 기회는 대체로 공정하게 부여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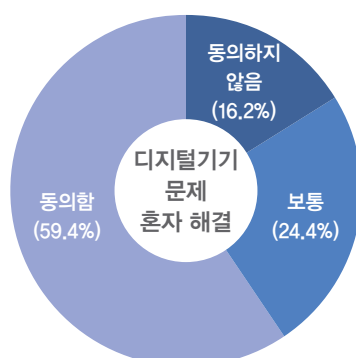
본 인식조사에서 건강 불평등은 ‘소득수준이나 지역 등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상태의 차이’로 정의하고, 우리나라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인 53.7%는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6.1%,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20.2%였다.



근로 · 노동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인 고용할당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 채용에서의 청년고용할당제, 장애인고용할당제 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44.4%가 공정하다고 평가하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5.4%,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20.2%로 나타났다.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공정하다는 응답은 41.0%로 분석되었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28.8%,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은 30.1%였다.



다음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귀화한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한 다문화 가구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주민·다문화 불평등을 설문조사 항목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외국 이주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에 따르면 동의한다는 의견이 43.0%, 보통이라는 의견이 33.6%,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3.5%로 나타났다. 다문화수용성이 낮을수록 인종이나 출신국가 등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문화 수용에 부정적인 인식이 크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 불평등 측면에서는 디지털기기를 이용하다 잘 모르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가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분석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59.4%, 보통이라는 응답이 24.4%,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6.2%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디지털기기를 혼자서도 잘 다룬다고 볼 수 있어, 정보·기술 불평등이 심각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

¹ 다만, 본 인식조사는 웹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져 인터넷 접근성 등이 높은 응답자만 조사에 참여하는 표본 편향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제 정보·기술 불평등 수준은 조사 결과보다는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